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12.1

담당부서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12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1월 CBSI 0.2p 하락한 58.7 기록

- 2010년 8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 2012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매우 소폭(0.2p) 하락한 58.7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특히 2010년 8월의 50.1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재경신함.
 - CBSI는 지난 9월에 9.10대책 발표, 계절적 요인 등에 힘입어 올 들어 최고치인 70.6을 기록한 이후 전월인 10월에는 전월비 11.7p 다시 하락해 58.9를 기록함.
 - 통상 전월에 CBSI 낙폭이 크고 지수 자체가 저조한 경우에는 기저효과로 통계적 반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11월에는 CBSI가 전월비 추가적으로 소폭 하락했음.
 - 이는 그만큼 현재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9.10대책의 본격적 시행, 연말 공공공사 발주 증가 시작 등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을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12월 CBSI 전망치는 11월 실적치 대비 4.3p 상승한 63.0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2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11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2월에는 통상 연말 공공 공사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CBSI가 전월비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11월 CBSI가 저조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쳐 12월 CBSI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비 소폭 상승했고,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10월에 전월비 14.8p나 하락한 76.9를 기록하며, 6개월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했는데, 11월에도 전월비 1.7p 상승한 78.6에 그치며 여전히 80선 아래에 머물.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2.1p 하락한 55.6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 최근 중견업체의 유동성 위기 지속 영향으로 중견업체 지수가 저조한 흐름을 지속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0.4p 하락해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38.9를 기록함. 그 결과 중소기업 지수가 올 1월의 36.8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부진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5.4, 100.0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92.3, 88.7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5.5, 75.7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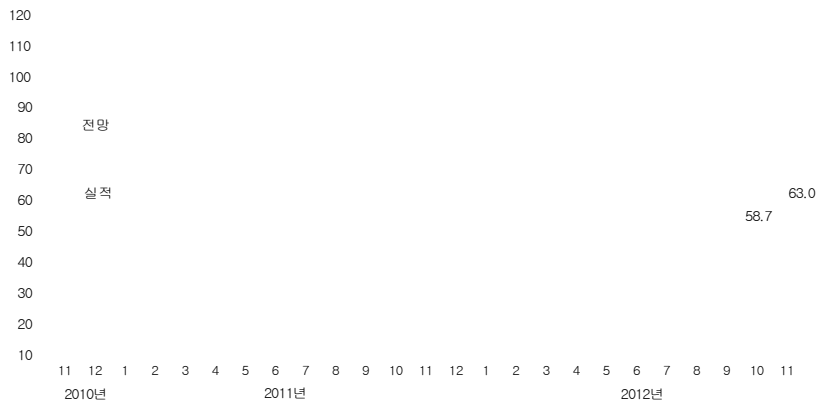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1월 CBSI 0.2p 하락한 58.7 기록
2010년 8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2012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매우 소폭(0.2p) 하락한 58.7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특히 2010년 8월의 50.1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재경신함.
- CBSI는 지난 9월에 9.10대책 발표, 계절적 요인 등에 힘입어 올 들어 최고치인 70.6을 기록한 이후 전월인 10월에는 전월비 11.7p 다시 하락해 58.9를 기록함.
- 통상 전월에 CBSI 낙폭이 크고 지수 자체가 저조한 경우에는 기저효과로 통계적 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11월에는 CBSI가 전월비 추가적으로 소폭 하락했음.
- 이는 그만큼 현재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9.10대책의 본격적 시행, 연말 공공공사 발주 증가 시작 등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을 건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비 소폭 상승했고,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10월에 전월비 14.8p나 하락한 76.9를 기록하며, 6개월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했는데, 11월에도 전월비 1.7p 상승한 78.6에 그치며 여전히 80선 아래에 머물.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2.1p 하락한 55.6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 최근 중견업체의 유동성 위기 지속 영향으로 중견업체 지수가 저조한 흐름을 지속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0.4p 하락해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38.9를 기록함. 그 결과 중소기업 지수가 올 1월의 36.8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부진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적	전월 전망치	전망
총 합	62.3	66.7	69.9	66.4	65.4	63.8	65.7	59.0	70.6	58.9	58.7	66.3	63.0
규모별	대형	76.9	92.9	85.7	71.4	92.3	92.9	80.0	91.7	76.9	78.6	84.6	71.4
	중견	69.6	58.3	68.0	72.0	58.3	50.0	46.2	61.5	57.7	55.6	56.0	64.0
	중소	36.8	45.6	53.4	54.1	41.8	45.6	44.8	49.1	56.4	39.3	56.6	51.9
지역별	서울	73.7	81.4	74.7	74.1	74.9	72.1	79.4	63.8	80.5	69.9	69.6	73.0
	지방	47.5	46.5	62.5	54.9	53.6	51.0	45.2	51.6	56.5	43.2	42.5	55.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12월 CBSI 전망치는 11월 실적치 대비 4.3p 상승한 63.0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2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11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2월에는 통상 연말 공공 공사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CBSI가 전월비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11월 CBSI가 저조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쳐 12월 CBSI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11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는 전월 대비 0.3p 하락한 69.6을, 지방업체도 전월 대비 0.7p 하락한 42.5를 기록해 서울과 지방 모두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함.
- 서울업체 지수는 10월 69.9로 70선 아래로 지수가 하락한 이후 11월에 다시 0.3p 하락한 69.6을 기록해 지수가 2개월 연속 60선에 머물러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지방업체 지수는 10월 43.2을 기록해 부진하였는데 11월에도 다시 0.7p 하락한 42.5를 기록, 지난 2009년 8월 42.2 이후 2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한편, 12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11월보다 1.3p 감소한 68.3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은 12.9p 증가한 55.4로 전망함.
- 현상황에 대해서 서울업체는 건설경기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해 비관적이었던 반면, 지방 업체들은 악화된 정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11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과 동일한 61.8 기록

- 11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61.8을 기록, 물량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물량지수는 지난 7월에 69.2로 70선 이하로 하락한 이후 8월에 52.6을 기록해 부진하였음. 또한, 9월과 10월에도 각각 62.9, 61.8을 기록해 낮은 수준에 머물.
- 11월에도 10월과 동일한 61.8을 기록함으로써 지난 7~11월까지 5개월 연속 60선 또는 60선 미만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6월 이후 하반기 물량지수가 5개월 연속 70선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7~11월 이후 5년 만임.
- 다만, 2008년 9~11월 지수가 3개월 연속 60~50선 미만이었는데 이만큼 지수가 급락하지는 않았지만, 2008년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비수기 이후 지수가 뚜렷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 물량 상황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주택, 비주택, 토목 모두 60선을 기록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다만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해 다소 개선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9월 70.7을 기록해 11개월 만에 가장 양호했으나 10월들어 전월 대비 7.2p 감소한 63.5을 기록하였으며, 11월에도 1.6p 하락한 61.9를 기록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비주택 물량 지수는 지난 10월 6.6p 하락한 65.0을 기록했으나, 11월에는 전월보다 4.9p 상승한 69.9를 기록, 공중별로는 그나마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한편,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10월 4.6p 상승한 이후 11월에도 2.9p 상승해 2개월 연속 증가함. 결국, 5개월 만에 60선인 61.5를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대형업체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8.8p 증가하였으나, 중견과 중소 업체 물량지수는 각각 1.5p, 8.9p 하락하여 지수가 악화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8.8p 증가한 85.7을 기록함. 비주택 물량지수가 100으로 양호했던 가운데 주택과 토목이 각각 78.6을 기록함.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5p 하락한 61.5를 기록함. 주택이 전월 대비 13.8p 하락한 59.3으로 가장 부진하였음. 토목과 비주택은 각각 65.4, 72.0을 기록함.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8.9p 하락한 34.0을 기록, 지수가 9개월 만에 30선으로 하락함.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8.5p 상승한 45.5로 개선되었지만,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3.0p, 5.2p 하락하여 37.0과 32.1을 기록해 부진하였음.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1.8	85.7	61.5	34.0	70.7	48.9
	전망	69.4	92.9	64.0	48.1	79.4	54.5
토목	실적	61.5	78.6	65.4	37.0	70.0	48.9
	전망	66.1	85.7	60.0	50.0	76.7	50.8
주택	실적	61.9	78.6	59.3	45.5	67.4	53.5
	전망	61.5	78.6	56.0	47.7	66.4	54.1
비주택	실적	69.9	100.0	72.0	32.1	80.4	54.6
	전망	71.0	100.0	64.0	45.1	82.8	53.4

주 : 실적은 2012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2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2.7p 하락한 70.7을 기록해 지수가 소폭 하락한데 반해,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3.8p 상승한 48.9를 기록해 지수가 소폭 개선되었음.
 - 서울업체의 전월 대비 2.7p 하락한 70.7을 기록함.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2.5p 하락한 67.4로 부진하였으나,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는 각각 전월 보다 2.7p 5.4p 증가해 전월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음.
 - 지방업체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3.8p 상승한 48.9를 기록함. 주택 물량지수가 0.4p 소폭 하락하였으나,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2.7p, 3.6p 상승하였음.
 - 지방과 서울 모두 주택 물량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증가했음.
 - 다만, 서울업체의 경우 주택물량이 하락한데 따른 심리적 부담이 지방보다 다소 컸던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1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1월 실적치보다 7.6p 상승한 6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비록 지수가 개선되어도 11월 지수가 60선에 불과해 여전히 물량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함.
 - 공중별로 토목 물량지수가 11월보다 4.6p 증가한 66.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다음으로 주택 물량지수가 11월보다 0.4p 감소한 61.5로 전망되어 여전히 12월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11월 대비 1.1p 증가한 71.0으로 전망해, 타 공중에 비해서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와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5.4, 100.0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92.3, 88.7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5.5, 75.7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구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75.5	100.0	63.0	61.1	82.0	65.9
		전망	78.5	100.0	73.1	59.6	82.3	72.4
	자금조달	실적	75.7	100.0	66.7	57.4	85.1	61.7
		전망	75.9	100.0	65.4	59.6	83.3	64.7
인력	수급	실적	95.4	107.1	88.9	88.9	101.8	85.7
		전망	97.1	107.1	96.2	86.5	103.8	86.9
	인건비	실적	92.3	107.1	100.0	66.0	104.5	74.1
		전망	93.2	107.1	100.0	69.2	102.4	79.7
자재	수급	실적	100.0	114.3	100.0	83.3	108.2	87.9
		전망	97.2	114.3	92.3	82.7	104.9	85.5
	비용	실적	88.7	107.1	96.3	58.5	102.1	68.8
		전망	86.9	107.1	88.5	61.5	98.8	69.3

주 : 실적은 2012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2월 예측지수임.